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자의 얼굴

The Face of the Russian- Ukrainian War and the Letters

정지영

Jeong Jiyoung

연구원, 서교인문사회연구소
Researcher, Seogyo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학술 기고 Academic Contributions

1. 들어가며: 정치로서 전쟁 타이포그래피
2.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폭력 개념
 - 2-1. 발리바르의 폭력 개념
 - 2-2. 버틀러의 폭력 개념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자의 얼굴
 - 3.1. Alegreya Sans, 극단적 폭력의 얼굴
 - 3.2. Volja, 극단적 폭력의 거울로서
대항폭력의 얼굴
 - 3.3. Soviet Condensed와 Amika,
반폭력 혹은 극단적 폭력을 숨긴
대항폭력?
 - 3.4. 비폭력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글자체 연구와 글꼴 디자인
 - 3.4.1. Kyiv Metro Font
 - 3.4.2. Ara Oms
 - 3.4.3. 2022년의 Renta font는
2016년의 Monotype일까?
4. 머물며: 시민으로서 디자이너

요약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산된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하고 그것이 겨냥하는 함의를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폭력 개념을 통해 살핀다. 2년 6개월이 넘는 전쟁 동안 많은 타이포그래피 홍보물과 글자체가 생산되었다.¹⁾ 타이포그래피는 넓은 의미에서 글자를 이용한 시각적 기술과 그 결과물 모두를 가리키는데, 이 글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의미를 글자체²⁾의 모양(글꼴)과 글자체가 사용된 시각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글은 전쟁이 본격화된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배포되었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디자이너가 생산한 글자체와 글자체를 이용한 시각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시각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제작되었다면 그에 쓰인 글자체가 침공 이전에 만들어졌더라도 포함했다. 글자체의 맥락은 그것이 처음 제작될 때와 더불어 그것이 활용될 때도 다시금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쟁 중 디자인된 글자체와 기존에 생산된 글자체가 전쟁 중에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었는지 탐구한다.

핵심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리바르, 버틀러, 폭력, 타이포그래피, 글자체

Abstract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typography created during the Russian-Ukrainian war and analyzes its intended implications through the concepts of violence put forth by Balibar and Butler. While the war lasted over two years and six months, many new fonts and promotional productions came up. In a broad sense, Typography refers to visual techniques and materials that utilize fonts with their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is paper, I used the meaning of Typography as the shape of type and the design productions that mainly 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nts. I also limited the scope of productions designed after Feb. 24, 2022, when the war broke out by Russian and Ukrainian designers. In addition, I added the productions to the list if they came out after the invasion, even of the fonts developed before the war. Like the initial purpose of designing a font has a critical effect on the shapes of the font, the contextual mood created depends on how you use a typeface. This study examines how typefaces have been utilized to convey political messages during the war.

Keywords

Russia, Ukraine, War, Etienne Balibar, Judith Butler, Violence, Typography, Typeface

1. 들어가며: 정치로서 전쟁 타이포그래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전쟁 맥락 내에 있으며, 키이우(Kyiv)가 우리 타입 파운드리 이름의 일부인 한,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맥락 내에 머물 것입니다.”

- 예브겐 안팔로브(Kyiv Type Foundry)의 스티븐 헬러와의 인터뷰 중

전쟁 상황에서 제작된 타이포그래피는 전쟁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특히 글자체는 언어(메시지)와 결합되어 그것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한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창의적 저항(Creative Resistance)” 팀이 디자인한 포스터 표현법을 연구한 홍석우는 김연주의 연구를 경유하여 기 본지페(Gui Bonsiepe)의 ‘시각 수사학’을 기반으로 포스터의 시각적 형식을 분석한다.³⁾ ‘시각 수사학’은 언어에 적용되는 구문적 표현, 의미적 표현, 실용적 표현을 시각요소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무려 365개 포스터를 형식에 따라 분류하며 타이포그래피에 관해서도 지면을 일부 할애한다. 그러나 글꼴의 디테일에 집중하거나 역사적 글자체 양식과 결부 지어 타이포그래피를 해석하지 않는다. 홍석우의 논문에서 글자체는 “부르주아의 장식적 글자체인 세리프체”와 “사회주의 정치 이념을 명확히 표현하는 산세리프체”로 양분되는 소비에트 시기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에 “부드러운 손 글씨체”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서정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또한 연구자가 ‘시각 수사학’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은 형태를 도식에 따라 읽어내는 방법이다. 그 결과 포스터가 드러내는 바에 관한 연구자의 해석은 통상 피해 국민의 입장으로 상상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스터의 의미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 러시아의 잔인함, 우크라이나의 독자성, 자국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평화로 귀결된다. 이전 연구가 한 집단의 작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형식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면, 나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의 작업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겨냥하는 폭력 유형을 살피고자 한다.

전쟁 타이포그래피를 표현 형식과 더불어 전통적 글자체 양식과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글자체에는 시대별로 이어져 온 양식에 기반한

- 1) 스티븐 헬러가 우크라이나의 레터링 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올하 프로타소바(Olha Protasova)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7월 키이우(Kyiv)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Book Arsenal Festival>에서 2022년 이래로 디자인된 글자체 76개의 목록이 전시되었다. Olha Protasova는 이를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기간 동안 만들어진 글자체 중 가장 많은 양으로 밝힌다.
Steven Heller, “The Daily Heller: Graphic Design and the Fog of War.” *PRINT magazine*, July 29, 2023. <https://www.printmag.com/daily-heller/the-daily-heller-design-through-the-fog-of-war/>, (2024.6.3.)
- 2) 글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한 형태는 ‘폰트(font)’로, 글자체의 모양은 ‘글꼴’로 단어를 구분한다. 글자체가 직접

손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서체’로 불리며, 통일된 형식의 한 벌로 만들어지는 경우 ‘활자체’로 불린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모든 글자체가 손글씨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에 ‘서체’는 적합하지 않은 명칭이다, ‘활자체’ 역시 글꼴 디자인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명칭이나, 엄밀하게 말하면 활판인쇄 시 사용되는 글자를 부르는 명칭이므로 이 글에서는 글꼴 양식이나 일정한 표현 양식을 갖춘 글자꼴을 명명할 때 ‘글자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외에 글자의 모양(생김새)을 강조할 때는 ‘글꼴’로 부를 것이다.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활자공간, 2022), pp.36-37

- 3) 홍석우, 『우크라이나 전쟁 포스터의 예술적 표현 기법과 시각적 수사』, 『동유럽발칸연구』 제47권 4호, (한국동유럽발칸학회, 2023), pp.95-138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자체의 간접적 메시지⁴⁾는 특정 양식을 계승하는 형태 외에도 글꼴에 부여된 이름이나 글꼴 디자이너의 의도(작업 설명)에 영향을 받는다. 글꼴에 부여된 이름이나 의도가 이후에 글자체를 활용하는 주체에게 선택과 재맥락화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자체가 만들어진 당시 상황과 기준에 만들어진 글자체가 다시 쓰이는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렇듯 양식과 역사는 종종 글자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내포된 의미를 말해준다. 표면과 이면의 불일치는 곧 그것이 겨냥하는 폭력의 유형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례 각각에 폭력 개념을 적용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것이 내포하는 목적에 따라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글자체가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입장을 함축한다면, 전쟁 상황에서 글자체 생산과 사용은 명백한 정치 행위다. 따라서 글자체는 형태, 이름,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맥락화될 수 있다. 글자체가 어떤 시각물에 활용될 시에는 앞에서 제시한 요소와 함께 메시지(언어), 디자인 주체, 사회적 상황과 같은 다면적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디자인 행위와 글자체의 역할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기에 전쟁과 관련 없는 비정치적 행위, 혹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비폭력 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행위를 전쟁에 입장을 표명하고 개입하는 분명한 정치 행위로 인식했다.⁵⁾ 글자체의 역할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그것을 정치와 무관한 행위나 평화주의적 비폭력 사례로만 해석할 수 없다. 모든 글자체가 평화주의나 버틀러의 비폭력

4) 이 글에서 '메시지'는 문자를 통해 직접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쓰인다. 예컨대 메시지는 홍보물에 쓰인 글자에서 디자인적 표현이 빠진 내용(콘텐츠)을 의미한다. 이밖에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인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 외의 부가적 효과는 '간접적 메시지'로 구분하여 표기할 것이다. '간접적'이라는 표현은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의미'를 기의와 구별하며, 언어에서 기호로 환원될 수 없는 언어의 감각적, 정동적 요소를 '간접적 언어' 또는 '표현'으로 부른다. 이때 '표현'이 담지하고 그것이 전달하는 바가 '의미'다. "기호의 부재도 하나의 기호일 수 있고, 표현은 의미의 각 요소에 담화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연 의미로 방향을 바꾸는 언어에 대한 언어의 작용이다. (중략) 우리가 사건의 단계에서 표현의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었던 기준의 소재들이 어떤 의미화 체계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각적) "표현" "의미" "언어"와 같은 단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메를로-퐁티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글자체(typeface)가 전달하는 문구에 담긴 언어뿐 아니라 단순한 기의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를 최대한 언어화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표다. 따라서 나는 메를로-퐁티가 사용하는 '간접적 언어'를 '간접적 메시지'로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스티븐 헬러와의 인터뷰에서 키이우 타입 파운드리 디자이너 예브게니 안팔로브(Yevgeniy Anfalov)의 답변 일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침공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난 뒤, 나는 디자이너로서 내 직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정보 저항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모든 글자체를 기부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사람들 덕분에, 타입(Type) 업계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글꼴이 엄청나게 팔렸다. TDC NY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모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모두가 모두를 도왔고, 우리는 두 달 동안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금을 모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글자체인 <KTF Olivier>도 그 예다. 또, 나는 예술가 친구들에게 Khata Scho Palaje라는 티셔츠 판매 자선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티셔츠 에디션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했고, 아직도 몇 개는 판매 중이다." Steven Heller, "The Daily Heller: Type With Kyiv Influence", *PRINT magazine*, July 21, 2023. <https://www.printmag.com/daily-heller/the-daily-heller-kyiv/>, (2024.6.4.)

개념(이 둘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개념으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필 것이다)에 담긴 상호의존성을 전제하거나 지향하는 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자체는 발신자인 디자이너가 언어를 문자화하면서 부여하는 표현이지만, 수용자에게 언어와 동시에 전달되는, 문자로 직접 해명되기 어려운 간접적 메시지다. 글자체는 그것을 생산하거나 활용한 주체와 그것이 전면에 드러내는 메시지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와 메시지 중심의 해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이포그래피를 각각 폭력과 대항폭력의 이분법으로, 또는 폭력과 평화주의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이때 에티엔 발리바르와 주디스 버틀러의 폭력 개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이포그래피를 이분법 구도로 해석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이 글의 목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타이포그래피를 글자체 양식과 해당 지역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고 폭력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개념을 통해 그것이 겨냥하는 폭력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작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표면만으로 보지 못한 글자의 얼굴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론으로 제시된 개념보다 실제 현실의 사례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목격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폭력 개념

2.1. 발리바르의 폭력 개념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폭력을 정치 기반을 초토화하는 극단적 폭력과 지배구조 기능을 위한 구조적 폭력으로 나눈다. 그는 다시 극단적 폭력을 초주체적 폭력과 초객체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초주체적 폭력은 타자성과 이질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으로 환원하는 폭력이다.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대량 학살이 여기에 속한다. 초객체적 폭력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인간을 사물화하는 폭력이다. 재해와 관련한 죽음의 위기에서 특정 집단을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이나 식민지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여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게 하는 무력화가 여기에 속한다. 극단적 폭력에 해당하는 초주체적 폭력과 초객체적 폭력이 제도를 초월한다면, 구조적 폭력은 제도가 가하는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은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하는 제도적 착취와 억압이다.

발리바르는 자연주의적 동일성에 기초하는 자유와 평등이 오늘날 민주적 ‘토대’를 이룸을 비판하면서, “토대 없는 정치”로서 반폭력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게 ‘자연’은 자유와 평등의 원천인 동시에 생물학적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따라서 ‘자연’에 기반한 동일성은 극단적 폭력을 가동할 위험을 낳기에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 넓은 범위의, 더 다양한 동일성을 상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리바르의 요지다. 반폭력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동일성을 부정하면서 다양한 동일성으로 구성되는 “관국민적 시민권”을 추구하는 정치다. 그는 폭력(갈등)을 모든 관계 속에 변화의 계기로 지속하는 상황으로 보고, 폭력이 지속되는 중 극단적 폭력을 지연시키며 정세를 전도하는 정치로 반폭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폭력은 평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폭력에 관한 논쟁이 있는 한 폭력은 늘 존재하기에 “비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⁶⁾ 발리바르에게 비폭력은 폭력이 없는 상태로, 이는 극단적 폭력에 의한 갈등 소멸을 전제로 가능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다.

6)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난장, 2012), p.145

2.2. 버틀러의 폭력 개념

버틀러는 폭력에 대항하고 폭력을 막는 힘들과 연대하는 행위로 비폭력을 강조한다. 버틀러는 취약성을 상호의존성에 내재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특성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사회적 유대관계 내에 있는 존재로, 특정 상황, 사람, 구조에 취약한 존재다. 버틀러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하고 상호의존성을 비가시화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자기방어 논리로 행해지는 대항폭력 역시 ‘자기’ 경계 바깥에 있는 관계와의 상호의존성을 비가시화하는 폭력이다. 그가 폭력을 애도가치의 불평등에 따라 유형화하는 이유도 애도가치의 불평등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애도가치는 누군가를 애도할 만한 생명으로, 다른 누군가를 애도할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나눈다. 이러한 애도가치의 불평등은 곧 생명가치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누군가는 살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다른 누군가는 살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평가된다. 이는 곧 인종차별이나 전쟁 논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버틀러에게 비폭력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생명에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을 주장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버틀러가 주장하는 비폭력은 어떤 행위일까? 그는 비폭력을 “약하고 무익한 수동성”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며, “거부 행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힌다.⁷⁾ 그가 예시로 드는 파업 농성, 시민 불복종, 장벽 파괴, 정권 보이콧 등은 생명을 등급화하거나 살생하는 폭력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거부, 중단, 파괴를 제시한 점을 떠올린다면 버틀러가 주장하는 비폭력을 ‘평화주의’로 일축할 수 없게 된다. 버틀러는 폭력이 자명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자기방어의 논리로 프레임을 역전시켜 폭력이 정당화될 때,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거나 그 상황을 견디며 유대관계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을 비폭력 행위에 포함한다. 버틀러에게 비폭력은 살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적 행위다.

발리바르와 버틀러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하며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발리바르의 언어로는 ‘동일성’, 버틀러의 언어로는 ‘자기’)를 상상한다. 둘은 각자 주장하는 핵심 개념인 반폭력과 비폭력을, 변화하기 위한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폭력에 관한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사람이 비폭력을 다른 층위에서 사유하는 데서 기인한다. 발리바르에게 비폭력이 폭력이 없는 상태, 곧 모든 불확실성을 차단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상태라면, 버틀러에게 비폭력은 폭력에 폭력 아닌 힘을 가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다. 발리바르가 비폭력을 상태의 차원에서 다루는 한편, 버틀러는 비폭력을 행위와 그 효과 차원에서 다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버틀러가 주장하는 비폭력이 발리바르에게는 폭력에 관한 논쟁이 필요한, 일종의 폭력 상황으로 인지될 것이다. 이때 발리바르가 인지하는 폭력 상황은 지배계급의 극단적, 구조적 폭력을 뜻하지 않는다. 발리바르에게 폭력은 관계 내에서 조정되며 지속되는 불가피한 요소다. 따라서 버틀러와 발리바르가 제시한 개념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폭력에 저항하는 기술 또는 행위의 차원으로 반폭력과 비폭력 개념을 한정한다면, 둘을 비슷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발리바르의 반폭력 개념은 극단적 폭력을 증식하고 정치를 되찾기 위한 계기로 폭력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버틀러의 비폭력 개념과 다르다. 발리바르는 비폭력을 통한

7)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p.253



[그림 1] 모스크바에 설치된 크렘린궁 모병 홍보물
(출처: Photo by Kirill Kudryavtsev/Afp Via Getty Images)



[그림 2] 모스크바에 설치된 크렘린궁 모병 홍보물
(출처: <https://www.voanews.com/a/russia-year-of-war-purge-of-critics-surge-of-nationalism/6969827.html>)



[그림 3] Alegreya Sans
(출처: Google fonts (<https://fonts.google.com/specimen/Alegreya+Sans>))

저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폭력을 유효한 정치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버틀러가 주장하는 비폭력을 통한 정치의 가능성은 반폭력 개념 내에서 비어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버틀러의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폭력의 환등상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폭력에 맞서는 행위인 비폭력이 정치성을 띠는 사례는 현실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도시키는 반폭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저항하는 사례를, 비폭력은 정치적 행위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버틀러의 비폭력 개념은 힘과 폭력을 구분하여 폭력을 옹호하지 않기에, 발리바르의 반폭력 역시 폭력에 맞서는 기술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글자체가 담지한 폭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폭력 개념을, 폭력에 맞서는 행위로서 정치의 차원에서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자의 얼굴

3.1. Alegreya Sans, 극단적 폭력의 얼굴

“러시아의 영웅들에게 영광을!” 푸른 배경 위 오른쪽에는 러시아 국기가 펼쳐지고, 그 앞에 군인 한 명이 굳건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군인 한 명의 얼굴을 전면에 제시하고 배경에 국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은 영웅적 애국시민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소비에트 시기 프로파간다([그림 4, 5, 6] 참조)에서 나타나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강렬한 색상 대비가 사라지고, 푸른색과 흰색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왼쪽에는 흰색 글자체로 쓰인 문구가 중앙 정렬되어 있다. 상단부터 가장 두꺼운 굵기(Black 900)로 공통 문구인 “러시아의 영웅들에게 영광을!”이, 그 아래는 볼드 굵기(Bold 700)로 군인의 이름이, 하단에는 중간 굵기(regular 400)로 군인의 계급으로 보이는 단어가 자리한다. 왼쪽 하단에는 QR 코드가 배치되어 어딘가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그림 1]은 2022년 8월 모스크바 거리에서 촬영된 홍보물이다. 이러한 형태의 홍보물은 거리와 대중교통 같은 러시아 주요 도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다.

이 게시물에 사용된 글자체는 Alegreya Sans로, Google Fonts를 비롯한 여러 글꼴 웹사이트에서 오픈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있다.⁸⁾ Alegreya Sans는 휴머니스트 산스 계열로 분류되는데, 주로 책의 본문으로 사용되던 글자체다. 휴머니스트 산스는 휴머니스트 세리프에서 세리프를 제거한 산세리프(고딕) 글꼴로, 손으로 필기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흔적이 특징이다. 손글씨 흔적은 약간 휘어진 줄기(stem)와 비대칭한 속공간(counter)에서 확인된다. Alegreya Sans는 푸른 배경색과 흰 글자색을 통해 온화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강화한다. 동시에 군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Alegreya Sans로 조판되어 수용자에게 제시되는 군인 사진은 익명의 군인이 아닌, 기억될 한 사람이자 영웅이 된다. 버틀러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애도가치를 등급화하는 폭력이다. 얼굴과 이름을 마주하고 있는 몇 명의 군인 뒤에 이름 없이 사라질 수많은 이들이 존재함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각적 영웅화가 곧 애도가치의 등급화로 연결된다는 해석이 아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극단적 폭력과 평화주의가 시각적으로

8) “Alegreya Sans”, Google Fonts, accessed August 14, 2024. <https://fonts.google.com/specimen/>

Alegreya+Sans?preview.text=C/ЛАВА
 ГЕРОЯМ РОССИИ!&query=Juan+Pablo+del+Peral, (2024.6.4.)

공명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표면적으로 이 광고는 전쟁을 홍보하고 있음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롭다. 아니 이것은 거의 평화를 홍보하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만약 이 광고가 전쟁 상황에서 만들어졌음을 잇는다면, 만약 이 광고가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수용자는 이를 전쟁 홍보물로 받아들일까? 기껏해야 ‘국민을 보호한 군인을 기억하자’ 정도로 해석되지 않을까? 이 광고가 충격적인 이유는, 여기에 담겨 어떠한 요소도 폭력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비에트 시기 전쟁 홍보 포스터와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더욱 부각된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1940년대에 제작된 포스터로, 모두 한 명의 군인이 전면에 묘사되는데, 이들은 무장하고 있거나 폭력 행위를 전면에 드러낸다. 반면, [그림 1]과 [그림 2]에서 군인은 방탄복을 입고 있을 뿐, 무기는 보이지 않는다. 글자체도 소비에트 포스터에 사용된 글꼴 폭이 더 좁고 각진 형태로, Alegreya Sans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부드럽지 않은 인상이다. 소비에트 시기 프로파간다에 사용된 두꺼운(bold) 장체(condensed)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포스터 다수에서 발견된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두꺼운(Bold) 장체(Condensed)는 산업혁명 이후 광고의 출현과 함께 대중에게 주목받기 위해 등장했는데, 소비에트 시기에는 이데올로기 전파와 참전 독려에 사용되었다.

이 광고([그림 1과 2])가 드러내는 평화로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제시한 명목을 떠올리게 한다. 침공을 3일 앞둔 2월 21일, 푸틴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지였던 돈바스의 두 지역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며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군 파견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고 네오나치 세력인 우크라이나 정부를 탈나치화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이는 돈바스에 군대를 파견하며 시작한 전쟁을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으로 명명하는 이유다. 실상 러시아의 전쟁은 자기방어 논리로 행해지는 극단적 폭력(초주체적 폭력)이지만, 그것은 평화를 명목으로 삼는다. 극단적 폭력은 자기 외형을 평화주의로 치장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목격하는 극단적 폭력의 얼굴은 폭력성을 찾아볼 수 없는, Alegreya Sans로 위장한 운화함이다.

3.2. Volja, 극단적 폭력의 거울로서 대항폭력의 얼굴

“군대를 믿어/승리를 믿어” 이 포스터에 사용된 <Volja>는 우크라이나 글꼴 디자이너 마르셀라 모지나(Marchela Mozhynga)가 2022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쓰이는 글꼴이다. 이름인 ‘Воля(볼라)’는 우크라이나어로 자유와 의지를 뜻한다.⁹⁾ [그림 7]은 <Volja>로 만든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우크라이나군 페이스북 페이지(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에 게시되었다.¹⁰⁾ 이 페이지에서 전쟁에 관한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을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게시물에 사용된 글자체는 <UAF Sans>다. <UAF Sans>는 마르셀라 모지나가 우크라이나군 아이덴티티 메인 글꼴로 삼은 글자체다. 그는 자신의 비헨스(Behance)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UAF Sans>를 이렇게 평가한다. “우크라이나 디자이너인 드미트로

9) Yevgen Sadko, “21st Century Ukrainian Society and Fonts”, Rentafont (blog), May 30, 2023. <https://rentafont.com/blog/21stcentury-Ukrainian-society-and-fonts/>, (2024.6.4.)

10)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 Facebook, accessed August 16, 2024. <https://www.facebook.com/GeneralStaff.ua/>, (202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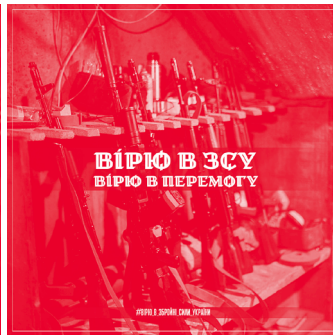
[그림 4] 소비에트 시기 포스터(1945)(출처: <https://www.litfund.ru/auction/463/75/>)



[그림 5] 소비에트 시기 포스터(1942)(출처: <https://nbdrx.ru/027ExhibitionPlakaty1942.aspx>)



[그림 6] 소비에트 시기 포스터(1942)(출처: <https://nbdrx.ru/027ExhibitionPlakaty1942.aspx>)



[그림 7] <VOLJA>를 활용한 우크라이나군 포스터(출처: <https://www.facebook.com/generalstaff.ua>)

라스트보르체프(Dmytro Rastvortsev)가 디자인한, 전통적이고 군사적이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독특한 폰트다.”¹¹⁾

그렇다면 마르셀라 모지나는 왜 <UAF Sans>와 비교했을 때 가독성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장식적인 글꼴 <Volja>을 굳이 제작하고 공식 세레머니 글자체(ceremonial font)로 선정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Volja>의 원도(바탕이 되는 그림)에 얽힌 역사가 필요하다. 미리 밝히자면, <Volja>는 닐 하세비치(Nil Khasevych, 1905-1952)가 그린 원도에서 파생한 글자체다. 렌타 폰트(Renta Font)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 예브겐 사코(Yevgen Sadko)는 1990년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사회상과 글자체를 소개하며, <Volja>에 관해서도 일부 다룬다. 예브겐 사코는 국제 타이포그래피 연맹(Association Typographique Internationale, ATypI)에서 주최한 2023년 파리 행사에서 발표했던 <21세기 우크라이나 사회와 폰트(21st Century Ukrainian Society and Fonts)>를 블로그에 공개했다. 아래는 그중 <Volja>를 소개하는 대목을 발췌해 번역한 내용이다.

“마르셀라 모지나(Marchela Mozhyzna)의 <Volja>는 유명한 디자이너이자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 닐 하세비치의 레터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폰트는 투쟁의 외형적, 역사적 표지를 결합한다. 글꼴의 뾰족한 강철 형태는 무기를 닮았다. 또 이 글자체는, 디지털화되기 전에도, 20세기 중반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맞서 싸우도록 촉구했다. 폰트 이름 역시 의미심장하다. Воля(Volja, 자유와 의지)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가치다.

글자체의 인상과 (마리우폴이 포위되었을 당시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방어하던 때에 만들어진) 제작 시기로 인해, <Volja>는 우크라이나 글꼴 디자이너 대다수가 꼽은 2022년의 주요 글자체가 되었다. 군인들도 새로운 글자체를 좋아했다. 군사 장비나 군대 광고에서 멋져 보이기 때문이다.”¹²⁾

11) “The unique font, designed by Ukrainian type designer Dmytro Rastvortsev, embodies the best Ukrainian font traditions and military style and meets all the needs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 It is also available in a version for nametags and equipment.”
Marchela Mozhyzna, “Armed Forces of Ukraine”, Behance, accessed August 16, 2024. <https://www.behance.net/gallery/168206725/zbrojn-silii-ukraini-Armed-Forces-of-Ukraine>, (2024.6.6.)

12) 강조는 원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Volja by Marchela Mozhyzna. It was created out of the letterings of the famous designer and fighter for Ukraine Nil Hasevich. This font combines both external and historical signs of struggle. The sharp steel shapes of the letters resemble weapons. In addition, these letters,

but not digital, had already called Ukrainians to fight,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name of the font also speaks for itself. Воля (which means Freedom and Will) is the main value of Ukraine.
The character of the letters and the moment of creation (it was made when our forces were defending Azovstal in Mariupol) made Volja the main font of 2022, according to most Ukrainian type designers. The new typeface was loved by soldiers because it looked cool on military equipment and armed forces advertising.
Yevgen Sadko, “21st Century Ukrainian Society and Fonts”, Rentafont (blog), May 30, 2024. <https://rentafont.com/blog/21st-century-Ukrainian-society-and-fonts>, (2024.6.6.)

예브겐 사코는 <Volja>의 원도가 낄 하세비치에게서 유래했음을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Volja>의 원도가 그려진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는 이 글자체에 관해 말할 수 없다. <Volja> 원작자인 낄 하세비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OUN)과 우크라이나 최고 해방 위원회(Ukrainian Supreme Liberation Council, UHVR) 회원으로 조직의 그라픽 전반을 제작했다. 목판을 주로 활용한 화가였던 그는 OUN-B의 독자적인 군사조직 우크라이나 봉기군(Ukrainian Insurgent Army, UPA)의 홍보를 담당했다.¹³⁾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B)은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1909-1959)를 대표로 1929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우크라이나 최고 해방 위원회(UHVR)는 우익 진영 인물들이 여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과 반소련 세력을 통합해 1944년에 결성한 조직이다.¹⁴⁾

낄 하세비치가 가담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은 실로 독일 나치와 연관이 깊다. 이 조직 자체가 독일 나치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 무장친위대 산하에서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을 무참히 학살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자유당과 돈바스 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된 아조우 부대의 뿌리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러시아의 명분을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¹⁵⁾

OUN은 본래 폴란드의 지배에 항거하는 자경단 형태의 독립투쟁단체인 우크라이나 무장전투단(UVO)에서 유래했으나, 우익계열에 의해 과격화된 결사체로 변질되었다. OUN 조직원에게 폴란드인과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배제해야 할 “정복자”, 유대인은 나치 독일의 관점에 따라 “본원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¹⁶⁾

다시 예브겐 사코의 설명으로 돌아가면, <Volja>의 제작 시기를 통해 제작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Volja>는 2022년 4월 말 러시아가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 전역을 점령했을 때 제작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지역이 아조우 부대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마리우폴은 아조우해와 이웃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해안 지역으로, 2014년 돈바스 분쟁 때 피난민이 몰려든 곳이다. 이 피난민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원한으로 아조우 부대를 결성했고, ‘아조우’라는 이름 역시 아조우해에서 따온 것이다. 2022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침공한 지역도 이곳이었다. 2022년 5월 중순까지 마리우폴 전투에 참전한 우크라이나 측 병력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에

13) “낄 하세비치(예술가, UPA 정보 홍보담당)은 스테판 반데라를 기리는 심볼과(나치 독일의 지역 대변인이던) 볼린(Volyn) 신문사의 기념 명판을 만들었다. 이 신문사에서 발행한 출판물들은 극단적 반유대주의와 “유대-불세비즘” 사상에 대한 나치 선전물이었다.” Petro Dolhanov, *Competing Narratives: Memory of the Second World War in Rivne Memorial Space, Holocaust Studies: A Ukrainian Focus, Volume 11*, 2020, p.57

14) “Ukrainian Supreme Liberation Council. Secret Records”,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of Ukraine, accessed August 17, 2024, <https://szru.gov.ua/en/history/>

stories/ukrainian-supreme-liberation-council-secret-records, (2024.6.6.)

15) 이 글에서 홍성우는 OUN-B의 대표였던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우익진영과 자유당이 유로마이단을 무력 휴결시위로 바꾼 점, 정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점, 아조우 부대가 공공연히 나치를 추종하고 스와스티카를 차용한 문장을 사용하는 점 등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네오 나치 세력과 이를 묵인하는 서구를 비판한다. 홍성우, 「네오나치(Neo-Nazi):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편한 진실’」, *Russia-CIS Talk*, vol. 3, 2023.3.1.

16) 구자정, 『악마와의 계약 우크라이나의 파시즘 운동, 1929-1945』, 『슬라브학보』 제31권 4호, 2015, pp.23-25



[그림 8] <volja>의 원도가 된 닐 하세비치의 그래픽

(출처: <https://news.blog.net.ua/2023/11/nil-khasevych-ya-ne-mozhu-bytysia-zbroieiu-ale-b-iusia-ritzsem-idolotom/>)



[그림 9] 닐 하세비치가 디자인한 OUN 문장(로고)

(출처: <https://euromaidanpress.com/2021/12/21/huge-stack-of-oun-documents-unearthed-in-ternopil-oblast/>)



[그림 10] <Volja>가 활용된 상장

(출처: <https://telegraf.design/rebdyzajn-zbrojnyh-syl-ukrayiny/>)

뿌리를 둔 아조우 부대 역시 포함되었다.¹⁷⁾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Volja>는 아조우 부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종의 기념비로서 작동한다. 오늘날의 아조우 부대가 다른 부대와 섞여 과거와 다른 목적과 행보를 보일지언정, 이 글자체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혼성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Volja>는 우크라이나 군 전체에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아조우 부대의 옛 기억인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크라이나군 전체의 통합된 특성으로 부여한다. 디자이너 마르셀라 모지나가 이 글자체를 세레머니 글꼴로 지정함은 인종주의에 기반한 극단적 폭력의 역사를 계승한다. <Volja>로 조판된 상장과 기념물¹⁸⁾은 그것을 받는 이에게 어떠한 영예를 수여하는가? 폭력에 정당하게 대항하는 듯 보였던 ‘자유와 의지’는, 자유와 의지를 향유할 인간의 범위를 경계 짓는 극단적 폭력의 거울상이 된다.

3.3. Soviet Condensed와 Amika, 반폭력 혹은 극단적 폭력을 숨긴 대항폭력?

“러시아 / 행복한 새해 되세요” 푸른 배경 위 중앙에는 “러시아”가 제목 글자로, 그 아래에는 “행복한 새해 되세요”가 그보다 작은 글자로 쓰여 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의 왼쪽 하단에는 OR 코드가 작게 놓여 있다. 푸른색 배경 위에 쓰인 흰색 글자, 그리고 QR코드로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연출된다. 앞에서 보았던 러시아 크렘린궁의 모병 홍보물을 기억하는가? 이번 광고에서 군인과 국기는 보이지 않지만, 색과 구성은 앞에서 본 홍보물과 유사하다. 전면에 드러나는 메시지, “러시아/행복한 새해 되세요”는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견해나 정치적 태색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문구로 읽힌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에 활용된 글자체는 <Amika>¹⁹⁾로, 기하학적(geometric) 산세리프(san-serif) 글자체다. ‘Amika’는 ‘우호적인, 평화적인’을 뜻하는 형용사 ‘amicable’의 명사형이다. <Amika>는 글자 A, P, R의 미드암(mid-arm)²⁰⁾이 중심보다 아래에 위치해 큰 눈과 짧은 다리를

17) 정의길, “마리우폴 최후 저항 우크라 ‘아조우 부대’... 극우 이미지 세탁하나?” 《한겨레》 2024.7.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45952.html>
아조우 부대가 나치의 후예라는 역사적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정치적 편익에 따라 미국이 아조우부대를 암암리에 지원했음이 밝혀졌다. 이후 미국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부대를 지원하지 않는 레이히 법에 따라 아조우 부대에 무기 지원을 금지했으나, 2024년 6월 10일 아조우 부대에 대한 제재를 해지했다. 관련 정보는 아래 기사를 참조.
이종훈, “미, 우크라 아조우 연대에 무기 지원 금지 해제”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79980&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2024.6.11.)

18) “Armed Forces of Ukraine (AFU) visual communication”, Font In Use, accessed August 19, 2024. <https://fontsinuse.com/uses/55744/armed-forces-of-ukraine-afu-visual-communicat>,

(2024.6.8.)

19) <Amika>는 주앙 크라셀(João Cracel)이 Cracel type에서 2020년에 발표한 글자체다. “Amika”, About Amika Font Family, Myfonts, accessed August 20, 2024. <https://www.myfonts.com/collections/amika-fontcraceltype#aboutThisFont>, (2024.6.11.)

20) mid-arm은 세리프 전통에서 줄기(stem)와 떨어져 있지만, 캡 바(cap bar) 위치에 있는 글자체 부위의 명칭이다. cap bar는 대문자 A, E, H등에서 중간에 있는 가로획(crossbar)을 말한다.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활자공간, 2022), p.179

가진 동물처럼 친근한 비율을 형성한다.²¹⁾ <Amika>의 친근한 인상은 “행복한 새해 되세요”라는 메시지와 결합되어 무구한 새해 인사로 읽힌다. [그림 12]

한편 “러시아”에 활용된 글자체는 세계적으로 전쟁 시기에 자주 쓰이던 고딕 계열 장체(san-serif condensed) 양식으로 분류된다. 그래픽디자인사에서 유명한 전쟁 포스터로 꼽히는 알프레드 리이트(Alfred Leete)의 모병 포스터²²⁾나 이를 미국식으로 차용한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James Montgomery Flagg)의 포스터에도 고딕 계열 장체가 제목 글자로 쓰였다. [그림 13, 14] 고딕 계열 장체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듯한 표현으로 명시성과 더불어 한정된 지면에 많은 단어를 들어가게 하는 효율성까지 갖춘 글자체였다. 강력한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선전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참전 독려 포스터에 고딕 계열 장체가 사랑받은 이유다.

전형적인 전쟁 시기 양식으로 쓰인 “러시아”는 무구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왜인지 의미심장하다. 특히 이 제목 글자는([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확인되는) 소비에트 시기에 자주 쓰이던 장체(condensed)와 너무도 닮았다. 글꼴의 명칭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골격과 표현을 가진 글꼴로 2019년에 발표된 <Agitaciya>가 있다. <Agitaciya>는 선동(agitation)을 뜻하는 이름으로, 소비에트 시기에 발행된 출판물이나 영상 그래픽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글자체다.²³⁾ 앞에서 본 영국과 미국 포스터에 쓰인 글꼴과 [그림 11]의 광고에 쓰인 글꼴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획의 연결부가 직선으로 마무리된 점이다. 이는 같은 고딕 계열 장체 양식 안에서 소비에트적 성격을 부각하는 요소다. 광고의 글자체는 영국과 미국 모병 포스터에 쓰인 글꼴보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보이는 소비에트 시기 프로파간다에 쓰인 글꼴에 더 가까워 보인다. 글자가 호명하는 “러시아”는 러시아 시민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동시에 그들의 소비에트 시절을 되살리는 부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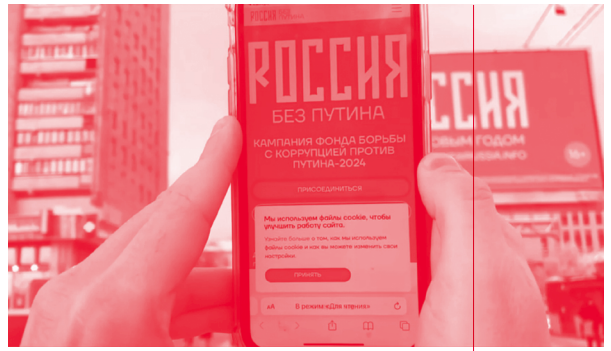
이 부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소비에트 시기를 연상하게 하는 글꼴과 친근하고 우호적인 인상의 <Amika>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찬동하라는 의미일까? 이 광고가 게시된 2023년 12월 7일은 다음 해인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였다. 광고는 이를 동안 게시되었다가 급히 철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광고에 삽입된 QR코드에 접속한 뒤에야 알게 된다. 광고에 인쇄된 QR 코드와 웹사이트 주소 “HAPPYNEWRUSSIA.INFO”는(‘푸틴 없는 러시아’를 뜻하는) 접속하는 동시에 “neputin.org”로 변환된다. 웹사이트는 홍보 전화, 동영상 게시, 전단 배포, 그래픽티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는 100일 동안 최소 10명의 시민이 푸틴

21) 한 벌의 글자체에서 캡 바의 위치가 모두 같지는 않다. [그림 12]를 보면 E, H의 캡 바는 중앙에, A, P, R의 캡 바 또는 미드 암(mid-arm)의 높이는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캡 바는 글꼴 디자이너가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Amika>의 경우 대문자 높이(Capital height)를 기준으로 중앙이나 그보다 아래로 범위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1915년, 1차 세계대전(1914-1918) 중에 영국에서 제작되었다. 포스터에 사용된 이미지는 1914년 5월 9일 자 잡지 <런던 오피니언> 표지에 쓰인 영국 국방장관

호레이쇼 키치너 경(Lord Horatio Kitchener)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잡지 표제 ‘국가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 놓였다. 필립 B. 맥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황인하 옮김, 미진사, 2002, p.291

23) <AGITACIYA>는 알렉산더 시마노프(Alexander Shimanov)가 2019년에 발표했다. “AGITACIYA Soviet propaganda font”, Deezy, accessed August 20, 2024. <https://deezey.com/product/18331/agitaciya-sovietpropaganda-font>, (2024.6.8.)



[그림 11] 모스크바에 설치된 새해 인사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푸틴 반대 독려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출처: <https://apnews.com/article/russia-putin-election-opposition-navalny-d46962589bef449b8bbf498132f97047>)

RUSSIA AP EH

Amika Regular

[그림 12] AMIKA TYPEFACE(출처: <https://www.myfonts.com/collections/amika-font-craceltype#aboutthisf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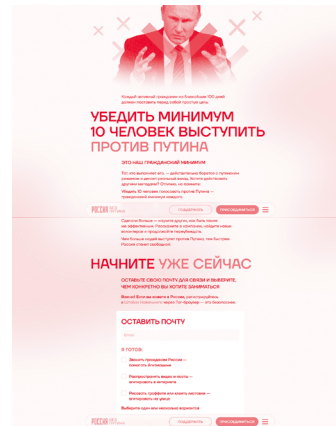
[그림 13] 알프레드 리이트(Alfred Leete)의 모병 포스터 (영국, 1915)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ord_kitchener_wants_you)



[그림 14] 알프레드 리이트를 차용한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의 모병 포스터 (미국, 1917)

(출처: <https://www.loc.gov/resource/ppmsca.55870/>)



[그림 15] 광고에 인쇄된 QR로 연결된 웹페이지(출처: <https://neputin.org/>)

반대에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다.²⁴⁾

이 광고[그림 15]를 취재한 AP통신은 게시 관리자가 QR코드로 이어지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광고가 이를 동안 게시되었다고 보도한다.²⁵⁾ 광고가 게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광고에서 드러나는 형식이 러시아 크렘린궁의 모병 포스터와 닮았음을 반증한다. 푸틴 체제하에서 (전쟁을 독려할 목적이 아닌 이상) 반전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그래픽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 행복한 새해 되세요”는 표면적으로 러시아 크렘린궁의 모병 홍보물을 형식적으로 전유한다.²⁶⁾ 이 광고는 전쟁을 직접 비판하는 식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형식적 전유를 통해 발리바르가 말하는 반폭력의 가능성을 도모한다. 이 광고가 겨냥하는 과녁은 전쟁을 일으킨 현재의 지배 정권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폭력을 권력으로 전환하여 그에 맞서는 정치를 펼치고자 할 때 가능해진다. 이 광고는 표면에 정치와 관련 없어 보이는 문구를 내세우고, 이면에 푸틴 정권을 타도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으로 정세를 전도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극단적 폭력 상황을 지속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QR코드의 은폐하는 성질과 그것을 찍어야만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불편함은 정치의 은신처로 변환된다. 러시아 모병 포스터에서 Alegreya Sans로 기만의 대상이 되었던 시민은 연대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좋은 친구(Amika)가 된다.

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Каждый активный гражданин на ближайшие 100 дней должен поставить перед собой простую цель: УБЕДИТЬ МИНИМУМ 10 ЧЕЛОВЕК ВЫСТУПИТЬ ПРОТИВ ПУТИНАЭТО НАШ ГРАЖДАНСКИЙ МИНИМУМ
 Тот, кто выполняет его,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рется с путинским режимом и делает реальный вклад. Хотите действовать другими методами? Отлично, но помните:
 Убедить 10 человек голосовать против Путина — гражданский минимум каждого.
 Сделали больше — научите других, как быть таким же эффективным. Расскажите о кампании, найдите новых волонтеров и продолжайте убеждать.
 Чем больше людей выступит против Путина, тем быстрее Россия станет свободной.
 НАЧНИТЕ УЖЕ СЕЙЧАС
 ОСТАВЬТЕ СВОЮ ПОЧТУ
 ДЛЯ СВЯЗИ И ВЫБЕРИТЕ,
 ЧЕМ КОНКРЕТНО ВЫ ХОТИТЕ
 ЗАНИМАТЬСЯ Важно! Если вы

живете в России, регистрируйтесь в Штабах Навального через Tor-браузер — это безопасно. ОСТАВИТЬ ПОЧТУ
 Я ГОТОВ:
 Звонить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 помогать Агитмашине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видео и посты — агитировать в интернете Рисовать граффити или клеить листовки — агитировать на улице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accessed August 21, 2024. <https://neputin.org/>, (2024.6.10.)

25) Emma Burrows, “Allies of Russian opposition leader Navalny post billboards asking citizens to vote against Putin”, *AP news*, December 8, 2023. <https://apnews.com/article/russia-putin-election-opposition-navalny-d46962589bef449b8bbf498132f97047>, (2024.6.8.)

26) “푸틴 정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10년간 정치사범으로 감옥살이를 한 뒤 런던으로 이주한 러시아 재벌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는 반부패재단의 광고를 칭찬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명칭을 염두에 두고 이 광고를 ‘특별 선거 작전’으로 부르며 농담했다.” 앞의 기사 참조.



[그림 16] <Amika>가 활용된 모스크바의 또 다른 반전 포스터
 (출처: <https://www.azatutyun.am/a/3229226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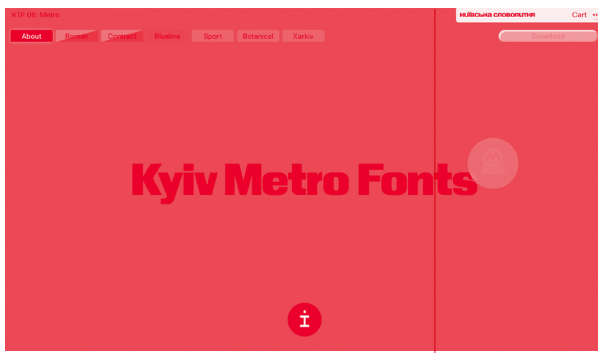
그러나 형식과 달리, 이 광고가 진정 반폭력을 목표로 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제작 주체를 고려하면 이 광고의 목적이 다소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광고 게시를 후원한 인물은 러시아에서 푸틴의 정적으로 꼽히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다. 그는 러시아 내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강경파로 외국인들은 그를 서구 자유 민주주의자로 여겼다. 그러나 알렉세이 나발니의 전적으로 볼 때, 그를 자유 민주주의자로 정체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그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단체 행진에 참여했으며, 치과의사 복장을 하고 이민자를 충치에 비유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17년 전 동영상이 발견되었다.²⁷⁾ 이러한 나발니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지점이 인종주의에 따른 극단적 폭력(초주체적 폭력)이며, 이 광고는 그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푸틴 정권에 대한 대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 사례는 현실 사례에서 반폭력과 폭력의 다른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3.4. 비폭력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글자체 연구와 글꼴 디자인

앞에서 시각물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와 그것이 겨냥하는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비폭력 실천을 목표로 수행된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은 기존의 역사를 성찰하는 현재적 관점을 제시하고 구매가 후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현실 정치와 연결한다. 그러나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폭력 실천으로서 불안전함을 드러낸다. 나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배경과 함께 각각의 사례가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7)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기에 푸틴의 정적이었던 나발니의 행적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이를 가장 진실되게 증명할 수 있는 이들은 러시아 국민일 텐데, 푸틴 정부에 의해 러시아 언론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발니는 정치 사범으로

30년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생활하던 중,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24년 2월 16일에 옥사했다. “Alexei Navalny, Russia’s most vociferous Putin critic”, *BBC News*, February 16, 202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16057045>, (2024.6.14.)



[그림 17]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출처: <https://www.kyivtypefoundry.com/projects/kyiv-metro-fonts?id=0>)

3.4.1. Kyiv Metro Font

“키이우 지하철 글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들려준다. 그것은 책이다. 여러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²⁸⁾ 이 구절은 Kyiv Metro Font(키이우 지하철 폰트) 프로젝트 서문 중 일부다. 2023년 여름, 키이우 타입 파운드리(Kyiv Type Foundry)를 운영하는 예브겐 안팔로프(Yevgen Anfalov)와 올레스 게르건(Oles Gergun)은 Kyiv Metro Font(키이우 지하철 폰트) 워크숍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 키이우 지하철 역사를 탐구하고 역마다 다른 글꼴을 관찰해 폰트를 만들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 5가지 글자체(Roman, Blueline, Sport, Botanical, Xarkiv)가 <KTF Metro>라는 이름의 글자 가족(font family)으로 다듬어졌다.²⁹⁾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28) 전체 서문은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을 되풀이하듯, 2022년 키이우 지하철은 수천 명의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되었다. 이 슬픈 사실은 지하철 역사에서 크나큰 이정표이며, 그 역사는 계속해서 써 내려지고 있다. 60년 전에 지어진 이 시설은 (2016년 기준) 하루 132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공물 중 하나다. 역 건축의 일부로서, 키이우 지하철 글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들려준다. 그것은 책이다. 여러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역에서 내리면 당신은 각 역마다 다른 글자체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2023년 여름 “키이우 지하철 폰트”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그를 바탕으로 폰트를 만들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1주일 안에 폰트를 완성했고,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5개를 선별하여 다듬었다. 이 결과물이 <KTF Metro>라는 글꼴 가족으로, 이 도시의 타이포그래피 기억을 보존하고자 한다. 예브헨 안팔로프는 메트로 역사학자 올레그 토츠키와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의 답변은 키이우 메트로 글자체가 등장한 배경을 밝히고, 전시된 글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한다. <KTF Metro>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나머지 세계에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비상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기부를 요청한다. PayPal을 이용해 결제하면 그 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고 2024년에 보고할 예정이다. “Kyiv Metro Font”, Kyiv Type Foundry, accessed August 21, 2024. <https://www.kyivtypefoundry.com/projects/kyiv-metro-fonts?id=0>, (2024.6.10.)

29) 공식적으로 총 6개지만, 현재 웹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글꼴은 5개이며, 현재 폰트로 존재하지 않는 <KTF metro-Contract>는 추후 다듬어져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앞의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참조.

폰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에 참고한 자료와 지하철 역사가 올렉 토츠키(Oleg Totsky)와의 인터뷰도 확인할 수 있다.³⁰⁾

올렉 토츠키와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화를 읽어보면 이 워크숍이 소비에트 역사에 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대화에는 민족주의 틀을 기준으로 디자인할 글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그 예로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KTF Metro-Roman>이 로만 알파벳 글자체인 Antiqua를 원도로 했음을 밝힌다.³¹⁾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KTF Metro-Contract>에 대해서는 이 글꼴의 이름이 키이우의 콘트랙토히 광장(Square of Kontraktova)과 연관이 있는 한편, 소련 산업 표준 글꼴에서 유래한 형태임을 밝힌다. <KTF Metro-BlueLine>에 대해서는 “유럽을 연상하게 하는 정사각형 글꼴”로 묘사하며, “기술적 낙관주의와 진보의 상징으로 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글꼴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³²⁾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에서 우크라이나 고유의 민족성보다 그리스 문자를 공통 기원으로 하는 문자의 역사를 더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³⁾

키이우 지하철 글자체를 소재로 디자인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활동가이자 글꼴 디자이너인 보단 흐달(Bohdan Hdal) 역시 지하철 역명 글꼴로 쓰인 스탈린 양식 글꼴을 대신할 글자체를 디자인한 바 있다.³⁴⁾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글꼴 디자이너들은 왜 키이우 지하철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현재 키이우 지하철이 시민들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키이우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저널리스트, 파브리즈 데프레즈(Fabrice Deprez)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키이우 지하철의 역할을 집중 취재했다. 그에 따르면 지하철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NATO 공격에 대비한 폭격 대피소와 운송 시설을 겸하도록 설계되었다. 시민들은 안전하면서도 무선통신으로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하철로 몰려들었다. 전쟁 발발 직후, 키이우 지하철역 47개가 우크라이나 시민 약 4만 명을 수용했다. 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는 지하철역에서 회담을 갖거나 기자 회견을 진행하기도

30) 앞의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참조.

31) <Antiqua>는 니콜라 장송(Nicolas Jenson)이 알두스 마누티누스(Aldus Manutius)의 의뢰로 15-16세기 무렵 만든 글꼴이다. “Kyiv Metro Font”에 게시된 관련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디자인한 버전은 레드 라인(Red Line) 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Antiqua>를 기반으로 한다. 어떤 면에서 이는 그것을 대표한다. 우리는 누락된 글자, 특히 라틴문자를 새로 그려야 했다. 복잡한 작업은 아니었다. 고전 양식의 대문자를 모델로 하는 글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마 대문자의 기념비적 양식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이를 <KTF Metro Roman>으로 부른다.” 원문은 앞의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참조.

32) “사실상 이 글꼴은 일종의 산업 표준으로, 소비에트 연방 전역에서 동일한 주형으로 주조되었다. 우리끼리는 이 글꼴을 “DIN”으로 불렀는데, 이는 “Deutsche Industrienorm(독일 산업 표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선적 “O”와 모든 낱자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특징으로 알려진 글꼴을 가리킨다.” 앞의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참조.

33) “그리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블루 라인(Blue Line) 상의 역명은 “유럽”(편집자 주: Aldo Novarese의 유로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네모꼴을 하고 있다. (중략) TV 화면처럼 넓은 네모꼴 유로스타일 글꼴은 197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기술적 낙관주의와 진보를 나타냈다.” 앞의 “Kyiv Metro Font” 웹사이트 참조.

34) “Kyiv Metro is changing the design of station names from a Stalinist to a Ukrainian typeface”, Chytomo, February 9, 2024. <https://chytomo.com/en/ukrainian-designers-emphasized-the-need-to-avoid-stalinist-typefaces/>, (2024.6.10.)

했다.³⁵⁾

이에 따라 키이우 지하철은 전쟁 맥락에서 기념비적 장소의 의미를 획득했으며, 주요 거리나 광장 이름과 함께 키이우 지하철의 주요 역명을 우크라이나식으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키이우 시의회 부시장 볼로디미르 본다렌코(Volodymyr Bondarenko)에 따르면 이미 200개 이상의 키이우 거리와 광장 이름이 바뀌었다.³⁶⁾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뀐 역명을 교체할 간판 글꼴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디자이너들은 글꼴을 디자인하고 그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디자인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삼는다. 이들의 디자인은 명명에 담긴 메시지와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체가 전하는 간접적 메시지를 사회 지배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그에 저항하는 행위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자체 구매는 곧 연대가 된다. 워크숍을 기획한 예브게니 안펠로프(Yevgeniy Anfalov)는 스티븐 헬러(Steven Heller)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전쟁 맥락 내에 있으며, 키이우가 우리 주소 이름의 일부인 한,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맥락 내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출시한 글꼴은 소비에트 연방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타이포그래퍼나 레터링 아티스트를 조사할 때, 우리는 항상 (종종 비극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들의 전기와 일했던 맥락을 연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동료에게 전하고자 합니다.”³⁷⁾

3.4.2. Ara Oms

“No War”을 뜻하는 조지아어 <Ara Oms>는 “기하학적 스크립트(geometric script)”로 불리는 1가지 스타일로, <Ara Oms Sans Mono>는 오픈타입(opentype)과 배리어블(variable) 기능을 지원하는 8가지 스타일로 구성된 폰트다. <Ara Oms>는 전통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픽 글꼴로, 집회 현장에서 테이프를 잘라 붙인 듯한 인상의 글자체다. <Ara Oms Sans Mono>는 한 글자를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오픈타입 기능을 통해 파도치는 글줄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9]에서 처럼, 하나의 낱자에 서로 다른 높이와 모양의 글꼴이 1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 단어를 구성하는 낱자 각각을 디센더 라인(descender line)까지 내려오는 높이와

35) “키이우의 지하철역들은 특수 환기 및 필터 시스템과 두터운 금속 폭발 안전문을 갖추고 있으며, 이 문들은 지상 출입구와 터널 모두에서 밀폐되도록 설계되었다. 지하철 전문가이자 블로거, 올렉 토츠키는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폭발 안전문은 몇십 년 동안 통근자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다고 답했다.” Fabrice Deprez, “Kyiv’s Metro Is a Symbol of the City’s Resilience”, Foreign Policy, November 22,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11/12/ukraine-russia-war-kyiv-metro-transit-shelter-missiles/>, (2024.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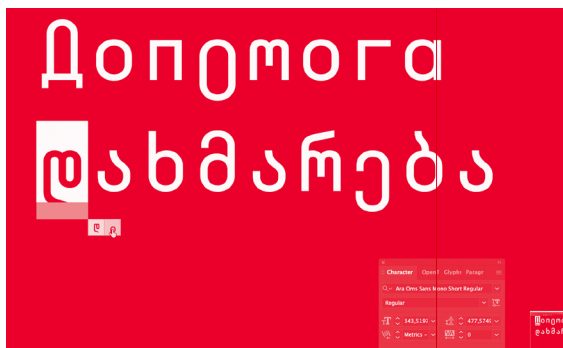
36) “키이우 주민들은 수도에 위치한 랜드마크의 이름을 바꾸는 데에 10만 표 이상을 행사했다. 여기에는 “인민의 우정(우크라이나어로

Druzhby Narodiv)” 지하철역을 그 지역의 역사적 이름인 “Zvirynetska”로,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이름을 딴 “Lva Tolstoho”를 “Ukrainian Heroes Square(우크라이나 영웅 광장)”으로 변경하는 일이 포함된다.” The Kyiv Independent news desk, “Kyiv residents vote to rename 2 metro stations, streets, landmarks in capital”, Kyiv Independent, January 13, 2023. <https://kyivindependent.com/kyiv-residents-vote-to-rename-2-metro-stations-streets-landmarks-in-kyiv/>

37) Steven Heller, “The Daily Heller: Type With Kyiv Influences”, PRINT magazine, July 21, 2023. <https://www.printmag.com/dailyheller/the-daily-heller-kyiv/>, (2024.6.10.)



[그림 18] <ARA OMS>로 타이핑한 “PEACE”(원)
(출처: <https://www.typeroom.eu/ara-oms-anti-war-geometric-script-typeface-to-support-ukrainian-refugees>)



[그림 19] <ARA OMS SANS MONO>의 오픈타입(OPENTYPE) 기능(출처: <https://readymag.website/u3764447279/3850033/>)

엑스하이트(x-height) 높이로 섞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ono’라는 한 단어에 앞의 ‘o’는 하단부가 디센더 라인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모양으로, 뒤의 ‘o’는 하단부가 베이스라인(baseline)에 닿는 중간 높이의 정원(正圓)에 가까운 모양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자의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눈으로 읽을 때 글줄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흐름을 형성한다.

<Ara Oms>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꼴 프로젝트를 소개한 typeroom은 제작 주체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수용자가 오로지 글자체의 형상과 제작 의도에 집중하기를 바랐다고 평가한다.³⁸⁾ 그도 그럴 것이, 이 글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글꼴 웹페이지에 자선단체 3곳이 링크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에 기부하고 그 내역을 메일로 보내야 글꼴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이너는 조지아에 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Ara Oms>를 제작한 의도를 직접 밝히면서, 사용자가 글꼴을 구매하는 대신 자유 금액으로 기부하게 했다. <Ara Oms>는 라틴 문자로 구성된 유럽권 언어 대다수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를 모두 지원한다.³⁹⁾ <Ara Oms>는 다양한 글꼴 형태와 언어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수익금이 전쟁 난민 지원 단체에 직접 전달되도록 유통 구조를 조직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폰트 구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에 세 난민 지원 단체 링크를 직접 삽입한 점이다. 단체 이름은 ‘Choose to Help’⁴⁰⁾ ‘Emigration for action’⁴¹⁾ ‘Volunteers Tbilisi’⁴²⁾이다. 그중 두 번째로 링크된 ‘Emigration for action’은

38) “Ara Oms: an anti-war geometric script typeface to support Ukrainian refugees”, Typeroom, September 13, 2022. <https://www.typeroom.eu/ara-oms-anti-war-geometric-script-typeface-to-support-ukrainian-refugees>, (2024.6.13.)

39) “Ara Oms&Ara Oms Sans Mono”, Ara Oms, Readymag,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readymag.website/u3764447279/3850033/>

40) “Requisites”, Choose to Help,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choosetohelp.ge/eng#dengi>, (2024.6.13.)

41) “Emigration for action”, Emigration for action,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emigrationforaction>, (2024.6.13.)

To get Ara Oms (1 style) or Ara Oms Sans Mono (8 styles + variable font), make a donation to one of these volunteer organizations, helping Ukrainian refugees in Georgia:

Choose to Help
Emigration for action
Volunteers Tbilisi

You can donate any amount, comfortable for you, — yet we expect that if you plan to use the typeface in large projects, the donation will be sizable.

Please note that Ara Oms and Ara Oms Sans Mono

[그림 20] <ARA OMS>와 <ARA OMS SANS MONO> 판매 페이지에 링크된 세 기부 단체



[그림 21] EMIGRATION FOR ACTION 웹페이지. 왼쪽의 맞잡은 손은 우크라이나 난민, 오른쪽의 맞잡은 손은 러시아 난민에게 기부를 안내하는 아이콘이다.

우크라이나인만을 지원하는 다른 단체와 달리, 전쟁으로 난민이 된 러시아인도 지원한다. Typeroom은 <Ara Oms> 프로젝트를 “글꼴 디자인이 직접적인 인도주의적 운동”이 된 사례로 평가한다.⁴³⁾ 한편 이 프로젝트는 초국가적인 면도 있다. 글자 형태를 특정 국가나 민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서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를 최대한 포함하고자 한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그래픽 글꼴인 <Ara Oms>는 글꼴의 원도를 역사적 양식이나 필기구에서 찾는 전통적 글꼴 디자인 방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양식적 “기반 없음” 위에 선다. 특정 양식에 귀속되지 않는 형식은 국가적 민족성을 약화한다. <Ara Oms Sans Mono>는 오픈타입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글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각적 다양성을 표방한다. <Ara Oms>가 공동체의 공통성으로 상징하는 ‘동일성’(발리바르)과 ‘자기’(버틀러)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 반대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에 반대(Ara Oms)하는 비폭력의 힘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준다.

3.4.3. 2022년의 Renta font는 2016년의 Monotype일까?

프랑스의 글꼴 디자이너 프랭크 아데비예(Frank Adebaye)는 「글꼴 주권(Type Sovereignty)」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 간의 전쟁이 아님을, 글꼴을 둘러싼 권력 구도로 보여준다.⁴⁴⁾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한 2014년 이래 이어진 긴장관계 속에 발발했다. 프랭크 아데비예에 따르면, 미국의 글꼴 회사 모노타입(Monotype)은 2016년 말, 러시아 국방부와 리눅스에 대한 제재로 Times New Roman과 Arial의 라이선스 공급을 중단하고, 2018년 말에는 Verdana에 대한 라이선스도 거부했다. 당시 Times New

42) “Volunteers Tbilisi”,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volunteerstbilisi.com/>, (2024.6.13.)

43) “Ara Oms: an anti-war geometric script typeface to support Ukrainian refugees”, *Typeroom*, September 13, 2022. <https://www.typeroom.eu/ara->

[oms-anti-war-geometric-script-typeface-to-support-ukrainian-refugees](#), (2024.6.16.)

44) Frank Adebaye, “Type Sovereignty”, NaN txt,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www.nan.xyz/txt/type-sovereignty/>, (2024.6.16.)

Roman은 러시아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글자체였으므로 모노타입의 조치는 공문서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정부의 모든 활동을 제동하는 처사였다. 이는 러시아에서 2016년 초부터 푸틴이 정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자국 생산으로 변경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항이었다. 글자체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버틀러가 말한 비폭력의 힘이 작동하는 전형적 거부 사례에 가깝지만, 모노타입이 미국 회사임을 감안할 때, 이 거부를 국가 간 패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프랭크 아데비예의 관점도 일리가 있다.

프랭크 아데비예는 이 글에서 러시아 글꼴 회사 파라타입(Paratype)의 행보를 미국 글꼴 회사 모노타입과의 관계를 통해 서술한다. 이는 키릴 문자가 라틴 문자와 동일한 그리스 문자를 뿌리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모노타입의 러시아 제재 이후 파라타입이 만든 글자체가 제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예로 2016년 개발된 PT Astra Sans와 PT Astra Serif는 금지된 Times New Roman 대신에 만들어졌고, 2021년 개발된 PT Astra Fact는 금지된 Verdana 대신에 만들어졌다. 미국산 글자체에 의존하던 러시아에게 미국의 제재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조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반드시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렌타폰트(Renta Font)가 2022년부터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렌타폰트는 유럽어, 슬라브어, 그리스어, 아시아 키릴 문자,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히브리어와 인도어 글꼴을 취급하는 광범위한 글꼴 유통 회사다. 렌타폰트는 폰트를 대여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식으로 공급하면서, 글자체를 주제로 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다. 블로그에 방문하면 렌타폰트의 대표인 예브겐 사코가 쓴 글을 읽어볼 수 있다. 그중 내가 앞의 3.2.에서 언급한 <1991년-2023년 우크라이나 사회와 폰트>⁴⁵⁾는 우크라이나 글자체 연구에 있어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예브겐 사코는 러시아에 배타적이며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는 글자체(우크라이나 정교회 글자체와 우크라이나 군대 글자체 등)를 공공연히 소개하면서도 단 한 번도 “민족주의”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게시물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에서 그는 렌타폰트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이어서 그는 “최근에는 글꼴 라이선스 소유주가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글꼴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며, 렌타폰트가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 기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⁴⁶⁾ 앞에서 소개한 <Ara Oms> 프로젝트처럼 렌타폰트 또한 게시물에 링크를 삽입하여 해당 자선단체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곧장 후원 화면([그림 22] 참조)으로 연결된다.

[그림 21]에 보이듯, 렌타폰트가 소개하는 자선단체는 민간인이나 난민이 아닌, 우크라이나군을 후원하는 곳이다. 예브겐 사코는 렌타폰트의 구성원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밝혔지만, 렌타폰트는 미국 국적 회사이기도 하다. 이 점은 분명 렌타폰트가 우크라이나의 그 어느 매체보다 우크라이나 글꼴의 역사와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이유, 앞에서 본 OUN 조직원이었던 닐

45) Yevgen Sadko, “21st Century Ukrainian Society and Fonts”, Rentafont (blog), May 30, 2023. <https://rentafont.com/blog/21stcentury-Ukrainian-society-and-fonts>, (2024.6.17.)

46) Yevgen Sadko, “Consequence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Rentafont (blog), March 30, 2022. <https://rentafont.com/blog/Consequences-of-the-Russian-invasion-of-Ukraine>, (2024.6.17.)



[그림 22] 렌타폰트 블로그에 게시된 글 <CONSEQUENCE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에 링크된 사이트

(출처: <https://savelifeline.in.ua/en/donate-en/#donate-army-card-weekly>)

하세비치가 그린 원도를 재현한 우크라이나군 세레모니 글꼴인 <Volja>를 별도의 배너로 띄워 광고하는 이유를 곱씹게 한다. 렌타폰트가 러시아어 글자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비단 푸틴 정권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정부의 목소리만 배제하지 않는다. 이 제재는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렌타폰트를 통해 목소리를 낼 기회 또한 박탈한다. 2022년 렌타폰트의 제재는 2016년 모노타입의 그것과 닮은 구석이 있다. 렌타폰트의 사례는 비폭력의 힘이 '비폭력'으로서 발휘되려면 '무엇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거부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촉발한다.

4. 머물며: 시민으로서 디자이너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타이포그래피를 둘러싼 디자인 사례 6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이 표면에서 드러내는 폭력과 이면에서 목표하는 폭력 유형을 발리바르와 버틀러의 폭력 개념을 통해 살폈다. 앞에서 소개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폭력 개념에 따라 나뉜 경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고, 표면적 메시지와 이면적 메시지는 어긋나거나 개념을 초과했다. 침략국 러시아의 모병 홍보물은 극단적 폭력(초주체적 폭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Alegreya Sans>의 사례(3.1.)는 이를 은폐하는 평화주의, 혹은 평화를 명목으로 한 대항폭력으로 형식화되었다.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불가피한 대항폭력이 목적인 듯 보였던 우크라이나군의 글꼴 <Volja>의 사례(3.2.)는 글꼴의 역사적 유래로 보았을 때 인종청소를 자행한 극단적 폭력(초주체적 폭력)을 계승하는 형식임이 드러났다. 3.1.의 평화주의적 모병 홍보물 형식을 전유하는 식으로 활용된 <Soviet Condensed>와 <Amika>의 사례(3.3.)는 푸틴에 반대하는 정치로 정세 전도를 꾀하는 러시아 내 반폭력을 형식적으로 구현한 성공 사례가 되는 듯했으나, 그것을 후원한 주체를 고려하면 사실상 극단적 폭력을 향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았다.


비폭력의 사례(3.4.)로 든 세 가지 폰트 제작 및 연구 프로젝트 역시 완전한 비폭력

사례로 설명할 수는 없음을 확인했다. 민족주의에서 벗어난 비폭력을 목표로 했던 <Kyiv Metro Font> 프로젝트(3.4.1.)는 은신처이자 정치 기지로서 키이우 지하철이 획득한 사회적 가치로 볼 때 반폭력의 가능성 또한 엿보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라틴 문자와의 친화성을 강조하는 데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 반대로 말하면 왜 라틴 문자와의 친화성이 비정치적으로 묘사되는지 밝히기 전에는 비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다 많은 언어와 글꼴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Ara Oms> 프로젝트(3.4.2.)는 형식적으로 목표한 바인 비폭력을 가장 가깝게 구현한 사례로 꼽을 수 있지만, 조지아 지역 난민을 주요 후원 대상으로 삼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권 언어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완전한 “평등주의적 상상계”(버틀러)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Renta font>의 우크라이나 글꼴 연구 프로젝트(3.4.3.)는 대항폭력에 가까운 비폭력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글꼴 유통에 있어 러시아어를 배제하는 조치와 우크라이나 군대 후원, 미국 국적 회사라는 정황으로 볼 때 은폐된 폭력과 비가시화된 상호의존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글꼴 유통 제재가 전쟁에 대한 견해와 관계없이 국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Ara Oms> 프로젝트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필자인 나의 정체성에서 오는 한계를 절감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어 화자인 나, 대학에서 라틴 문자를 기초로 하는 타이포그래피 교육을 받은 나, 졸업 후 라틴과 한글 글꼴을 주로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된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글꼴을 내가 자라고 교육받은 환경을 통해 읽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지금까지 이 글에서 밝힌 사례는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는 영어나 한국어 화자에 의해 한 번 이상 매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쓰였다는 한계를 방증한다. 둘째로, 라틴 타이포그래피를 토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이포그래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는 한계다. 무엇보다 슬라브어권에서 사용하는 키릴 문자는 라틴 문자와 중세 글라골 문자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따라서 라틴 문자를 중심으로 한 글꼴 해석은 타이포그래피가 전달하는 간접적 메시지를 절반만 감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살펴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종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는 두 나라의 글자체와 민족 정체성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가담한 대표적 인물들(스테판 반데라, 닐 하세비치) 역시 성직자 집안 출신이며, 이러한 환경이 글자체의 형식과 내용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앞에서 다룬 우크라이나군 세레모니 글꼴 <Volja>(3.2.)의 원도 역시, 옛 교회 슬라브어와 꽤 비슷한 인상을 하고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글에서 나는 발리바르의 반폭력과 버틀러의 비폭력을 동등한 행위의 차원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반폭력과 비폭력은 각각 상태와 행위에 가까운 개념으로, 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보다 심층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내가 둘을 같은 층위에 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인 정치로서 디자인 행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극단적 폭력 상황에 처한 모든 디자이너는 자신이 시민임을, 늘 그래왔으나 이제야 비로소 시민임을 의식한다. 문자 그대로 전쟁터가 된 일상에서 디자인이 정치적 행위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내가 앞에서 살펴 본 사례들은 그러한 시급함 속에서 생산, 공유된 작업들이다. 이 작업들의 형태, 배치, 계승, 구조화, 유통, 연구 방법은 폭력에 의해 생산되었고 다시 어떠한 종류의 폭력으로 작동하는 정치다. 디자인이 행위인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다—색상 선택은 입장을 표명하며, 글꼴 선택은 그것이 속한 양식을 계승하며, 형태 선택은 과거의 신체적 경험을 인용하며, 사진 선택은 무엇을 가시화함으로써 다른 무엇을 비가시화하기로 결정한다.⁴⁷⁾

그런데 발리바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늘 폭력을 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다면 폭력 안에서 글자체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어떻게 진정한 비폭력 행위로 폭력에 ‘힘’을 가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어떻게 지금과 다른 공통성을 발명하고 초국가적 연대를 위한 얼굴을 형상화할 수 있을까? 누군가 이 치열하고도 불가능한 고민을 시작한다면, 나는 감히 이를 디자이너의 시민성으로 부르고 싶다. 

47) 디자인에서 선택과 그에 따른 효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정, 「악마와의 계약
우크라이나의 파시즘 운동, 1929-
1945」, 『슬라브학보』 제31권 4호,
2015
- 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리』,
활자공간, 2022
-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난장, 2012, 145쪽.
-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 필립 B. 맥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옮김, 미진사, 2002
- 홍석우, 「우크라이나 전쟁 포스터의
예술적 표현 기법과 시각적 수사」,
『동유럽발칸연구』 제47권 4호,
2023
- 홍성우, 「네오나치(Neo-Nazi):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편한 진실」,
Russia-CIS Talk, vol. 3, 2023
- 이종훈, “미, 우크라 아조우 연대에
무기 지원 금지 해제” 『SBS 뉴스』
2024.06.1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799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정의길, “마리우폴 최후 저항
우크라 ‘아조우 부대’…극우 이미지
세탁하나?” 『한겨레』 2024.7.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45952.html>
- “AGITACIYA Soviet propaganda
font”, Deezy, accessed August
20, 2024. <https://deeezy.com/product/18331/agitaciya-soviet-propaganda-font>
- “Alegreya Sans”, Google
Fonts, accessed August
14, 2024. [https://fonts.google.com/specimen/Alegreya+Sans?preview.text=СЛАВА ГЕРОЯМ РОССИИ!&query=Juan+Pablo+del+Peral](https://fonts.google.com/specimen/Alegreya+Sans?preview.text=СЛАВА%20ГЕРОЯМ%20РОССИИ!&query=Juan+Pablo+del+Peral)
- “Alexei Navalny, Russia’s most
vociferous Putin critic”, BBC
News, February 16, 202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16057045>
- “Amika”, About Amika
Font Family, Myfonts,
accessed August 20, 2024.
<https://www.myfonts.com/collections/amika-font-craceltype#aboutThisFont>
- “Ara Oms&Ara Oms Sans
Mono”, Ara Oms, Readymag,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readymag.website/u3764447279/3850033/>
- “Ara Oms: an anti-war
geometric script typeface to
support Ukrainian refugees”,
Typeroom, September 13, 2022.
<https://www.typeroom.eu/ara-oms-anti-war-geometric-script-typeface-to-support-ukrainian-refugees>
- “Armed Forces of Ukraine (AFU)
visual communication”, Font
In Use, accessed August 19,
2024. <https://fontsinuse.com/uses/55744/armed-forces-of-ukraine-afu-visual-communicat>
- Dolhanov, Petro. Competing
Narratives: Memory of the
Second World War in Rivne
Memorial Space, Holocaust
Studies: A Ukrainian Focus, Vol.
11, 2020
- “Emigration for action”,
Emigration for action,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www.emigrationforaction.com/>

- emigrationforaction.com/en/
- Emma Burrows, “Allies of Russian opposition leader Navalny post billboards asking citizens to vote against Putin”, AP news, December 8, 2023. <https://apnews.com/article/russia-putin-election-opposition-navalny-d46962589bef449b8bbf498132f97047>
- Fabrice Deprez, “Kyiv’s Metro Is a Symbol of the City’s Resilience”, Foreign Policy, November 22,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11/12/ukraine-russia-war-kyiv-metro-transit-shelter-missiles/>
- Frank Adebaye, “Type Sovereignty”, NaN txt,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www.nan.xyz/txt/type-sovereignty/>
-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 Facebook, accessed August 16, 2024. <https://www.facebook.com/GeneralStaff.ua>
- Heller, Steven. “The Daily Heller: Graphic Design and the Fog of War.” PRINT magazine, July 29, 2023. <https://www.printmag.com/daily-heller/the-daily-heller-design-through-the-fog-of-war/>.
- Heller, Steven. “The Daily Heller: Type With Kyiv Influence”, PRINT magazine, July 21, 2023. <https://www.printmag.com/daily-heller/the-daily-heller-kyiv/>
- “Kyiv Metro Font”, Kyiv Type Foundry, accessed August 21, 2024. <https://www.kyivtypefoundry.com/projects/kyiv-metro-fonts?id=0>
- Mozhyzna, Marchela. “Armed Forces of Ukraine”, Behance, accessed August 16, 2024. <https://www.behance.net/gallery/168206725/zbroyn-sili-ukrani-Armed-Forces-of-Ukraine>
-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accessed August 21, 2024. <https://neputin.org/>
- “Requisites”, Choose to Help,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choosetohelp.ge/eng#dengi>
- Sadko, Yevgen. “21st Century Ukrainian Society and Fonts”, Rentafont (blog), May 30, 2023. <https://rentafont.com/blog/21st-century-Ukrainian-society-and-fonts>
- Sadko, Yevgen. “Consequence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Rentafont (blog), March 30, 2022. <https://rentafont.com/blog/Consequences-of-the-Russian-invasion-of-Ukraine>
- The Kyiv Independent news desk, “Kyiv residents vote to rename 2 metro stations, streets, landmarks in capital”, Kyiv Independent, January 13, 2023. <https://kyivindependent.com/kyiv-residents-vote-to-rename-2-metro-stations-streets-landmarks-in-kyiv/>
- “Ukrainian Supreme Liberation Council. Secret Records”,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of Ukraine, accessed August 17, 2024. <https://szru.gov.ua/en/history/stories/ukrainian-supreme-liberation-council-secret-records>

“Volunteers Tbilisi”, accessed August 24, 2024. <https://volunteerstbilisi.com/>